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된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인욕과 하심 공부의 기본인 절하기를 배우는 포교사연수생들.

"인내하고 하심하며 간절히 도를 찾던 행자 시절이 가장 도심(道心)이 흥명한 때야."
"초발심을 낼 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은 절대 반말이 아니지."
노스님들이 일생의 살림살이를 회고하면서 후학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이다.
사미부터 고승 대덕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곁에 두고 마음 가짐이 흔들릴 때마다 열어보는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서도 인욕(忍辱)과 지계(持戒), 정진(精進)을 발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으로 누

마음 상태를 얻게 된다. 나아가 인욕을 몸으로 완전히 익혀 특별히 애쓰지 않고도 몸과 마음이 평온할 수 있으면 해탈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욕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익은 자신의 상(相)을 여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거저된 나(我)의 관념을 벗어나 스스로가 본래 공(空)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릇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온갖 공의 실상을 깨달아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정적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을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

인내로 영원한 자유를

누이 강조하고 있다.
원효 스님은 이 책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욕과 즐거움을 헌신짝같이 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고 믿고 존경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어 행한다면 부처님같이 존중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2가지의 인욕을 말하면서, 참된 인욕 바라밀을 닦으면 초지(初地) 보살은 7, 8, 9지(地) 수행 정도의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인욕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감정이 사라진 아주 평화로운

멋진 겁 동안 쌓고 쌓은 선행과 보시, 부처님께 올린 공양의 선업도 한 번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화내는 것보다 더한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고 한다. 심장에 분노의 화살이 박혀 있는 동안은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될 수 없으며, 수행의 최고 목표인 해탈에 이를 수도 없다.
"수보리여, 나는 분별하기 기억한다. 과거 오백세 생애 동안 나는 '인내를 설하는 자'라는 이름의 구도자였다."
수익겁 동안 인욕 바라밀을 닦은 부처님처럼, 몸과 마음의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먼저 '참는 공부'부터 해보자.

김재경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1일 (목)

■본동종합복지관 '본동지킴이 캠프' =봉사도 하고 심심수련도 하는 청소년 캠프가 소금강 오대산 수련원에서 3일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35시간 동안의 자연보호 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와 청소년 진로를 미리 알아보는 성격유형검사, 캠프라이어, 미니 올림픽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출발은 오전 8시 30분 서울 본동사무소 앞. 참가비는 3만 5천 원.02817-8052
■봉원사 '무료한문교육' =성급한 어린이,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 친구들과 잘 다루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에게 한문 배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서울 봉원사가 20일까지 매일 오전 10부터 2시간 동안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02392-3007
■경견스님 '부처님 호흡법 수련회' =절 호흡, 염불 호흡, 좌선 호흡, 행선 호흡, 와선 호흡, 단전 호흡 등 호흡법의 모든 것을 배운다.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가 8월 한 달 동안 경견스님이 지도하는 '부처님 호흡법 수련회'를 개최한다. 1인이 최소 3박 4일 정도 상주하며 호흡법을 공부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호흡의 바른 자세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일일이 스님에게 배울 수 있다.0311771-7745
■불교상담개발원 '정기교양강좌' = '사회 문제의 시작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 시대 부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공선영 강사를 초대에 '갈 시 작, 이혼이야기'를 주제로 부부 강좌를 개최한다. 02737-8803

8월 2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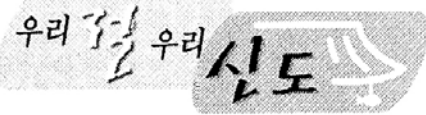


◇지난해 8월에 열린 백담사 '만해축전'. ■백담사 '만해축전'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며 만해사상과 문학의 현대적 의미를 살피는 '만해축전'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린다.
'전국고교생 백일장', '시인학교', '만해 문학과 사상'에 대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0339434-3922
■대구 동화사 '백교좌법회' =동화사가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을 초청해 '관세음보살의 수행법'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교좌법회는 현해스님에 이어 월운(봉선사 주지) 일연(봉선사 주지)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은혜사 주지)스님 등을 법사로 모시고 9일까지 계속된다.053198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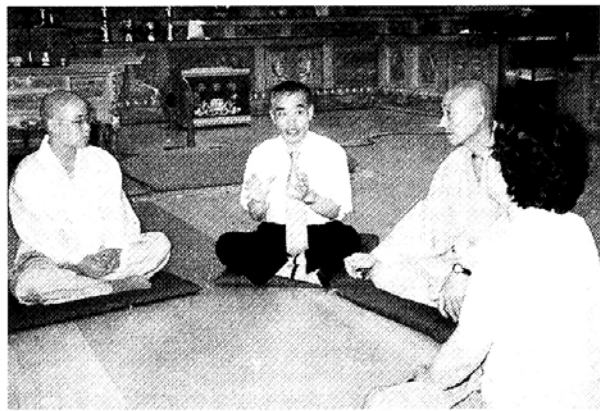
8월 5일 (월)

■용진신행회 '내소사 성지순례' =한 여름, 아름다운 변산에서 느끼는 여법한 산사의 정취. 이보다 좋은 휴가 여행은 없을 듯.
용진 신행회가 변산반도에 위치한 내소사와 개암사, 곰소 포구 등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출발은 오전 6시 서울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 5천 원.0212279-1191
■전국염불만일회 '미항사 염불대

교리·신행 상담 친절·시원·쉽게



남양주 수진사 이병국 상임법사



◇이병국 법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수진사 스님. 신도들이 불교교양 강좌 발전방향을 상의하고 있다.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가까운 자리에서 쉽고 편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보 불자 시절 누구나 해보는 고민.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 신도들에게 이런 고민은 없다. 항상 친절하고 숙시원하게 상담을 해주는 이병국 상임법사49 법명 운해가 있기 때문이다.
3년째 수진사 불교교양강좌를 맡아 오고 있는 이 법사는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특히 나이 때문에 불교공부에 마음을 내기 어려웠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 법사의 강의만 들으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진사 신도들은 이 법사를 가리켜 '맹언을 눈뜨게 해주는 거사'라고 부른다.

들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다보니 갈로수 같은 가르침의 매력은 끝이 없어서 몇 달이면 끝날거라고 생각했던 불교 공부 한없이 길어졌다. 자꾸 깊어만 가는 불법에 대한 갈구를 해결하고자 여기 저기 선지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직장인 고대 안암병원 옆에 있던 중앙승가대(현재 김포로 옮김) 성본스님(현 동대경주캠퍼스 선학과 교수)도 알게 됐다. 95년 이 법사의 불교공부 열의를 높이 산 스님이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 공부하도록 적극 추천했고, 이 법사의 불교공부는 나날이 깊어졌다.
4년 간 공부하며 얻은 결론은 오히려 평범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생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속에 올바르게 호흡하고 올바르게 먹고 자고 말하고 행

동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신비한 것이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단순한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 사회문제, 전쟁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사가 진행하는 교양강좌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른 마음을

이런 막중한 역할을 잘 소화내자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기도 일산 임조선사와 서울 장충동 행천선원에서 불교 강의를 했다.
이 법사는 수진사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틈틈이 어려운 노인들과 불우 청소년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불교수행은 단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아직 불교적 가르침을 현실 사회에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불자들의 뜻을 모아 복지 불사를 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근래 들어 이 법사는 새로운 서원을 하나 더 세웠다. 본격적으로 불교수행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법사는 불교수행을 위해 내년엔,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 생활을 사직할 계획이다.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철저하게

불교대서 강의...불우노인 돕기 앞장

내년 직장 그만두고 본격 수행 '서원'

내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부터.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잘 때 잠자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수진사 주지 남정스님은 "수진사 초보신도들의 기본교양은 이 법사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교수행을 해 볼 생각이냐.
이병국 법사는 "내가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남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일을 결심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는다.

추천의 말

남정스님 수진사 주지



이병국 법사는 우리 절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파일 등 사찰의 연례 행사와 불교 교양대학 강좌를 꾸려나가면서 이 법사는 아상을 드러내지 않고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위의 여러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에 바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하기 쉬운 면이 있지만 이 법사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돕지 않고는 못 배기는 따뜻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특히 노인과 불우청소년을 위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도울 뿐만 아니라 사재를 털어 병든 스님을 돌보는 등 수행과 실천이 일치하는, 드문 불자입니다.

앞으로 불교수행에 큰 뜻을 품고 본격적으로 정진을 하겠다고 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수행을 해 볼 생각이냐

이병국 법사는 "내가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남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일을 결심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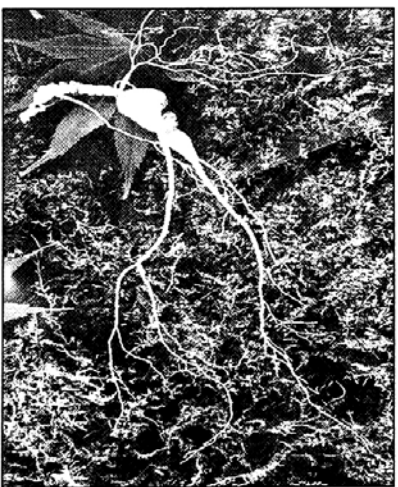
강유신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별존비에 지친 수혈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뇌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피로,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절명,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비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산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유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고향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단없이 別當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7가지로 모두 366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경뇌까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성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적조있는 산분이 될 것입니다.

특어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7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180,000) (동방바지: ₩170,000) (두루막: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40,000) (동방바지: ₩130,000) (두루막: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60,000) (동방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17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6. 잠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220,000) (특수직: ₩200,000)
7. 셔츠 (자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30,000
8. 걸방,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의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봉사 보시하면 심선(心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체물란을 소멸합니다.

◎ 잠삼(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울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임
3. 고급섬유로 촉감이 아주 뛰어나

※사용자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기원섬유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